



축평원 가족의 “위기탈출 넘버원”, 안전체험교육 리포트

고객홍보처

건설 현장 안전사고 소식이 이어지며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축산물품질평가원도 예외는 아니라 업무 환경 속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시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직원들은 3월 말의 어느 오후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안전보건공단 충청안전체험교육장으로 안전체험교육을 받으러 나섰다.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잠깐의 외도, 날을 맞춘 듯 따듯해진 날씨에 직원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의 교육은 이론교육을 겸한 실내체험교육과 가상안전체험, 실외체험교육의 순서로 진행됐다. 그중 첫 순서였던

실내체험교육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이해하고 자신과 동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웠다. 평소에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으로 빠는 일이 별로 없던 축평원 직원들은 이어지는 교육들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아,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잘했다”고는 안 했다는 것. 실내체험교육은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 전이나 중간 중간 할 수 있을 간단한 스트레칭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됐다. 문제는 바쁜 업무 속에 다들 경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기저기서 얇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것. 그새 피가 쏠려 벌겋진 얼굴들을 보며 ‘우리 괜찮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러진 악력체험에서는 맨손일 때와 장갑을 끼었을 때 힘의 차이를 확인하며 장갑의 유무에 따른 힘의 차이와 작업 시 유의점 등을 배웠다. 그 와중에 종종 남성임에도 기록표를 보고 “에이! 난 여자다, 여자!”라며 좌절하는 목소리나 “운동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때 아닌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깨닫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날 측정원의 기록은 남자는 57.3kg로 서위석 처장이, 여자는 35kg로 김희원 과장이 세웠다. 그리고 보니 모두 유통관리처다. 앞으로 측정원 유통관리처와 업무를 논할 때는 다들 적극 협조해주셔야 할 것 같다.

세 번째는 음주고글체험, 네 번째로는 VR로 실시된 건설현장 낙하&추락체험이 진행됐다. 특히, 음주고글체험에서는 거의 기어가듯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규진 이력사업본부장은 고글을 낀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정확한 발걸음으로 호쾌하게 걸어나와 박수를 받았다. (음주 경험치가 높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에 최규진 본부장은 그저 “하하” 웃음을 남겼다.)

실내 안전보건교육장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교육은 심폐소생술로 최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사고 뉴스가 종종 있었던 탄인지 직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실습마네킹과 제세동기를 붙잡고 혹자는 군대시절 배웠던 심폐소생술 지식과 비교하며 체험했고, 혹자는 깊이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갈비뼈가 부러지진 않는지 등을 꼼꼼히 질문하며 체험을 견학했다.

실내체험교육으로 진행된 안전보건교육 후에는 3D 동영상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가상으로 체험하는 가상안전체험관 교육을 거쳐 실외체험교육을 받았다. 실외체험교육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직접 체험하며 안전 확보 필요성과 재해예방 방법을 학습하는 것으로 체험교육동으로 자리를 옮겨 실시됐다.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으로 시작한 교육은 그래서인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 교육이 개구부 추락체험, 갑자기 발 밑 바닥이 휩 열리게 설계된 구조물에서 추락체험을 하는 것이었다.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초 뿐, 떨어지고 나면 사람이 폭 파묻힐 정도로 스티로폼 조각들이 충분히 쌓여 있었고, 그 밑에 안전

업무 환경 속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시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매트들까지 깔려 있다지만 은근한 충격은 있었다. '만약 이런 안전설비가 없는 실제 상황에 똑 떨어진다면 충격이 얼마나 되겠는지 상상해보라'는데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다음으로 진행된 것은 안전벨트 추락체험, 그네식 안전대와 허리벨트식 안전대의 차이를 체험해보는 순서였다.

5명 지원자를 받아 실시했는데, 그네식 안전대를 찾을 때는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손을 꼭 잡고 매달려 떠오른 후 기념촬영에 포즈를 취해 줄 정도의 여유를 보였다. 반면 벨트식은 허리가 접힌 채 떠올랐는데 바로 통증을 호소했고, 고개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벨트에 매달려 공중에 떠 있는 이들을 보며 밤새 걸어놓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쉽게도(?) 예정된 교육시간이 길지 않아 짧은 체험을 끝으로 내려와야 했다.

그 다음으로는 소화기 체험을 거쳐 대망의 조도질식연기체험에 돌입했다. 이날 최고의 이벤트가 벌어진 곳이다.

조도질식체험은 미로와 같은 구조물 안을 조를 이뤄 통과해 나오는 것이다. 처음엔 밝지만 곳곳에 밝으면 광음을 내는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통과한다. 이후 같은 곳을 깜깜하게 하고 연기를 잔뜩 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통과하게 된다.

강사는 "간혹 방향 감각을 잃고 들어간 문으로 다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도로 집어넣을 것"이라며 꼭 모든 코스를 통과해 최종문으로 나올 것을 당부했다. 이 당부의 말에 직원들은 웃었다.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였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얼마 뒤 한 조가 정말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 들어간 문으로 도로 나오며 눈앞에서 그 설마를 보게 됐다. 헤매다 거꾸로 나온 이들은 스스로도 웃긴지 주저앉아 밖에서 대기 중이던 이들과 함께 폭소했다. 물론 강사는 예고했던 것처럼 도로 체험 코스로 집어넣고 문을 닫아 주었다.

최종 결과, '설마'를 현실로 보여준 이들을 포함해 마지막으로 체험한 한 조만 빼고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3분 내에 못나오면 위험하다는데, 다들 시간을 넘겼던 것이다. LED 화재유도등을 켜 상태로 다시 체험했을 때 순식간에 빠져나오는 것을 보며 교육참가자들은 새삼 우리 회사는, 혹은 우리 집은 어땠는지 생각에 잠겼다.

이날 강사로 나섰던 안전보건공단의 민병윤 과장은 교육을 수료한 축평원 직원들에게 "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작업 환경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함을 끝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참가자 전원에게 교육수료증이 함께 담긴 안전수첩을 하나씩 건네주었다. 묘하게 든든하면서도 속제를 받은 듯 무거운 수첩이었다. 📄

